



식약처, 하수 속 불법 마약류 조사 현장 방문

- 마약안전기획관, 청주 하수처리장 방문…시료 채취 등 현장 확인
- 마약류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 지속적 협조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20년부터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연구진 등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청주 하수처리장을 3월 31일 방문했다.

* 마약류 사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사기법의 일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 조사방식 : 지난 5년간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도록 **17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총 3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지속 선정

이번 현장 방문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수 지점이나 채수 방법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연구진 등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도 하수역학 조사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날 현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마약류 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사업 수행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정밀한 추적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조사결과도 적극 활용하여 마약류 예방 및 단속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현철 (043-719-2808)
		담당자	사무관	박종숙 (043-719-3802)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리마약연구과	책임자	과 장	정기경 (043-719-5201)
		담당자	연구관	박수정 (043-719-5202)